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내년 단단해진 광주FC로 만나요"

광주 FC 선수들이 지난 30일 고양 종합 운동장에서 열린 고양 Hi FC와의 최종전 종료 휘슬이 울리자 포옹을 하고 있다. 광주는 김준엽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며 K리그 챌린지 3위를 지켰다. 〈광주 FC 제공〉

K리그 챌린지 최종전 승…상주상무·경찰 이어 3위

2부리그 부진한 성적 팀 리빌딩 불가피…개편 예고

승자의 얼굴이 아니라 이별을 앞둔 사내의 얼굴이었다.

지난 30일 광주 FC가 2013시즌 마지막 경기를 위해 고양 종합 운동장으로 출격했다. 광주는 후반 28분 터진 김준엽의 결승골로 고양전 1-0 승리를 장식하며 '마지막 자존심' 3위를 지켰다.

경기 종료를 알리는, 2013시즌이 끝났음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광주 선수들은 일제히 팔을 들어올리며 환호했다. 어느때 보다 오랜 시간 포옹을 하며 서로를 격려한 선수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팬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

이들은 또 남기일 감독대행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길었던 2013시즌에 마침표를 찍었다. 승리의 기쁨과 이루지 못한 우승의 목표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서운함이 교차한 표정들이었다.

남 감독대행은 이날 막강 외국인 듀오 알렉스-알미르가 버티고 있는 고양과의 쉽지 않았던 맞대결에서 승장이 됐다. 후반 20분 투입한 김준엽의 교체카드가 적중한 짜릿한 승리였다. 특급 선수들이 즐비했던 상주 상무·경찰축구단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이날 승리로 자력으로 3위에 오르며 마지막 자존심도 지켰다. 그러나 잠을 설쳐야 했던 피말리는 경기가 승리로 끝난 뒤 남 감독대행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이별의 슬픔을 얘기했다.

시즌이 끝난 소감을 묻자 남 감독대행은 "선수들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내년 시즌을 위해 팀을 새롭게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비워야 채우는 것인데 선수들 얼굴을 보니 고맙기도 하고 아쉽기도 미안하기도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생각해야 하는 입장이라 마음이 편치 못하다"고 심경을 털어놓았다.

2011년 K리그를 밟은 광주의 지난 3년은 파란만장했다. 시민구단 창단 최다승의 기록을 쓰며 이승기(전북)·김동섭(성남)·박기동(전남)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해 무서운 막내로 주목 받기도 했고, 내부 갈등으로 논란의 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강등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던 광주는 올 시즌에는 초반 부진과 어느 해보다 강력했던 상무와 경찰의 기세에 눌려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예상과는 달랐던 결과에 광주는 대대적인 팀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팀'이 광주가 추구하는 목표다. 선수단 정리는 불가피하다.

이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광주의 마지막 경기는 특별했다. 후반 42분 남 감독대행은 몸을 풀고 있던 양세운을 벤치로 불러들였다. 추가시간과 1점의 아슬아슬한 리드 상황임을 감안하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남 감독대행은 전명근을 빼고 신인 양세운을 그라운드에 세웠다.

양세운에게는 잊을 수 없는 프로 데뷔 순간이었다. 올 시즌 광주 FC를 가슴에 달고 땀을 흘린 선수 전원이 그라운드를 밟은 순간이기도 했다. 매경기가 전쟁인, 3장의 교체 카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축구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남 감독대행은 "올 시즌 함께 했던 선수들 모두 한번이라도 유니폼을 입혀주고 싶었다. 이렇게라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프로에 왔는데 자기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올라 경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고 양세운의 투입 배경을 설명했다.

남 감독대행이 자신에게 준 점수는 51점. 위기 상황에서 갑작스레 사령탑을 맡아 시행착오도 겪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희망을 본 만큼 50점에 1점을 보탰다.

남 감독대행은 "가능성을 봤다. 나는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을 선수들이 채워줬다. 혼자 하다보니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해줄 사람도 없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는데 선수들이 많이 도와줬다. 알아서 스스로 역할을 해줬고 '이런 것은 아니 것 같다.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떠겠냐'며 선수들이 많은 얘기를 해줬다. 경기를 하면서 상대팀을 통해 배우기도 했지만 오히려 선수들에게 많이 배웠다"며 2013시즌을 돌아봤다.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던 광주의 2013시즌 최종전. 광주가 더 큰 미래를 위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다. /고양=김여울기자 wool@

상화 '독존'

월드컵시리즈 女 500m 6연속 '金'

'빙속 여제' 이상화(서울시청)가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 500m에서 거침없는 '금빛 질주'를 이어갔다.

이상화는 지난 30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2013-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2차 레이스에서 37초32 만에 결승선을 통과, 예니 볼프(독일·37초66)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3위에는 올가 파트쿨리나(러시아·37초81)가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이상화는 올 시즌 출전한 6차례의 월드컵 시리즈의 여자 500m에서 모두 1위에 오르는 무서운 실력을 뽐냈다.

앞서 이상화는 캐나다 캘거리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1·2차 대회에서 4차례 레이스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캘거리 대회 2차 레이스(36초74),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1차(36초57)·2차 레이스(36초36)에서는 잇달아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는 캘거리와 솔트레이크시티보다 빙질이 좋지 않은 카자흐스탄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신기록을 써내지는 못했지만, 500m 최강자의 자리를 굳게 지켰다.

한편 남자 500m 디비전A 1차 레이스에 출전한 모태범(대한항공)은 35초09의 기록으로 9위에 머물렀고, 이강석(의정부시청)은 35초46으로 17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멀티' 흥민

뉘른베르크전서 3주만에 5·6호 골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이 정규리그 5·6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1일(이하 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끝난 2013-2014 분데스리가 14라운드 뉘른베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2골을 몰아쳤다. 지난달 9일 함부르크와의 12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정규리그 2~4호 골을 한꺼번에 올린 손흥민은 3주 만에 멀티 골을 터뜨렸다. 레버쿠젠은 손흥민의 맹활약을 앞세워 뉘른베르크를 3-0으로 꺾었다. 리그 3연승을 달린 레버쿠젠은 승점 34를 기록, 선두 바이에른 뮌헨(승점 38)에 이어 2위를 지켰다.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뉘른베르크 수비진을 흔들었다. 전반 25분 역습을 전개하다 프리킥을 얻어내기도 하고 34분에도 상대에게 볼을 빼앗아 페널티 지역까지 돌파하기도 했다. 몇 차례 골 기회를 엿보던 손흥민은 전반 36분 골문을 열었다.

손흥민은 곤잘로 카스트로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골대 정면에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23분 왼발 슈팅으로 뉘른베르크의 가슴을 다시 철렁하게 한 손흥민은 2-0으로 앞선 후반 32분 또 골을 터뜨리는 기쁨을 누렸다. 선취골 도움을 기록한 카스트로가 중앙에서 왼쪽으로 내준 볼을 받아 손흥민이 왼발 슈팅으로 연결, 레버쿠젠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한편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카디프시티에서 뛰는 김보경은 1일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 선발로 나와 후반 30분 교체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경기는 3-0 아스널의 승리로 끝났다. /연합뉴스

포항, 6년만의 왕좌

울산 현대 1-0으로 꺾고 K리그 클래식 우승

대구·대전 강등 확정…강원-상주 승강 PO

'토종군단' 포항 스틸러스가 울산 현대의 '철퇴 축구'를 무너뜨리고 6년 만에 K리그 챔피언 자리를 되찾았다.

포항은 1일 울산문수구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2013 K리그 클래식 A그룹(상위 스플릿) 40라운드 최종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김원일의 결승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겼다.

이번 시즌을 21승11무6패(승점 74)로 마친 포항은 울산(승점 73)을 승점 1점차로 따돌리고 K리그 클래식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포항이 K리그 왕좌에 오른 것은 2007년 이후 6년 만이자 통산 다섯 번째(1986·1988·1992·2007·2013년)다. 더불어 포항의 황선홍 감독은 프로 무대에서 첫 정규리그 우승을 맛봤다. 반면 울산은 2005년 이후 8년 만에 K리그 정상 탈환을 노렸지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한 울산이 공격에 집중한 포항의 끈기 앞에 끝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챔피언결정전이 된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포항은 '골잡이' 김신욱과 하피냐가 경고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 울산을 상대로 초반부터 공세를 퍼부었다. 비기기만 해도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는 울산은 김치곤-박동혁의 '철벽' 중앙 수비 콤비를 앞세워 포항의 김승대-고무열-노병준 '스리톱' 공격진을 막아냈다.

포항의 집요한 공격에도 울산의 철옹성 수비가 뚫리지 않았지만 후반 추가 시간마저 거의 지난 시점에 나온 마지막 프리킥 기회에서 승부가 극적으로 갈렸다.

포항 김재성이 차올린 프리킥이 울산 문전으로 향했고, 김원일이 시도한 오른발 슈팅이 울산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빨려들어갔다. 포항은 극적인 결승골로 6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되찾으며 '토종군단'의 위력을 과시했다.

한편 지난 30일 제주와 최종전을 치른 강원은 김동기의 해트트릭으로 3-0 승리를 거두며 클래식 잔류 희망을 살렸다. K리그 클래식에서 13·14위는 곧바로 2부리그로 강등되며 12위의 강원은 2부리그 챔피언인 상주 상무와 1부 잔류를 놓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12위를 노렸던 대구는 경남과 0-0 헛심 공방을 하며 강등권인 13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구는 일찌감치 강등이 확정된 최하위 대전(승점 32)과 함께 내년 시즌을 2부리그에서 보내게 됐다. /연합뉴스